

【어원 탐구·근대어】

‘大統領’의 출현

宋 敏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른 바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일원으로서, 1881년 4월 9일(양력 5월 6일) 일본선 안녕환(安寧丸)을 타고 부산의 초량(草梁)을 출발한 이현영(李憲永)은 약 4개월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세관 관련 업무를 조사한 후, 7월 28일(양력 8월 22일) 신호(神戶)에서 떠나는 천세환(千歲丸)을 타고 윤 7월 3일(양력 8월 26일) 초량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의 일본 여행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일사집략』(日槎集略)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新聞紙見米國大統領即國王之稱 被銃見害云(日記 辛巳 6월 초10일 庚子)

그는 당시 횡빈(橫濱)에 머물면서 세관 업무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에도 세관에 나가 부관장과 문답을 주고 받았는데, 신문에서 미국 대통령이 총격을 받아 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본 것이다(宋敏 1988). 그가 신문을 직접 본 것인지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여기에 나타나는 ‘미국 대통령’은 가필드(James A. Garfield)를 지칭한다. 그가 총격을 당한 것은 1881년 7월 2일이었으나, 이 소식이 일본의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7월 5일이었던 모양이다. 이현영의 일기에 적힌 6월 5일은 양력으로 7월

5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현영은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처음 들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누구에게나 그 뜻을 물었을 것이며, 상대방은 이현영이 알아듣기 쉽도록 ‘국왕’을 뜻하는 말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대통령’ 바로 밑에 달려있는 세주(細註) ‘국왕 지칭’이 그 사실을 말해준다. 그는 결국 ‘대통령’을 ‘국왕’이라고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왕’은 ‘최고위 통치자’라는 공통성을 가진 말이지만 그 개념은 전혀 다르다. 민주정치 하에서 선출되는 지도자만 ‘대통령’인 것이다.

이현영이 일본에서 알게 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국어에 곧바로 수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단어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나중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 수 있다(宋敏 1989). 1883년(고종 20)에 체결된 바 있는 한미조약(韓美條約) 제일관(第一款)은 “大朝鮮國君主 大美國伯理璽天德 並其商民……(『增補文獻備考』 권181 [補] 交聘考十二)”과 같이 시작된다. 이 때의 ‘伯理璽天德(bó-lǐ-xī-tiān-dé)’는 물론 president에 대한 중국식 음사형(音寫形)이다. 이 음사형은 그 후에도 한동안 그대로 쓰이고 있다.

(高宗)二十五年(1888) ……英國公司……呈遞國書 言及本國大伯理璽天德 將本國議政上下兩院僉舉 大伯理璽天德接攝大位之事(『增補文獻備考』 권181 [補] 交聘考十一 泰西各國交聘)

(高宗)二十八年(1891) 以整理儀軌八卷高麗史二十二卷 送法國大伯理璽天德(위와 같은 곳)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용례로 볼 때 ‘伯理璽天德’은 한동안 ‘대통령’과 ‘국왕’을 함께 지칭한 듯하다.

그러나 1892년부터는 ‘伯理璽天德’ 대신 ‘대통령’이 쓰이기 시작한다.

“(高宗)二十九年(1892) 駐筭美國公司報稱 該國大統領因南黨再薦 定爲新大統領, (高宗)三十一年(1894) 十月 法國大統領崩 新統領立 有該國國書 答書慰賀, (光武)三年(1899) 法國大統領崩 新統領立 以電慰賀, (光武)四年(1900) 九月 致親書勳章于美國大統領德國皇帝俄國皇帝法國大統領奧國皇帝(이상 모두 『增補文獻備考』 권181 [補] 交聘考十一 泰西各國交聘)”

등이 그렇다.

이렇게 볼 때 1892년부터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쓰이게 되었으며, 1900년경에는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황제'와는 구별되는 단어임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 쓰이게 된 '대통령'은 일본에서 태어난 번역어였다.

'대통령'이라는 신생어가 일본에서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1860년 초부터는 그 실례가 문헌에 나타난다. 齋藤毅(1977)의 제4장(129-174) '왕 없이 지배되는 나라(王なくして支配さるる國)'에는 서양제국의 공화정치가 일본에 알려진 역사적 과정이 상세히 논의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인용된 자료를 통하여 '대통령'이라는 단어의 실례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정치 제도가 소개된 부분에서 몇가지 용례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대통령의 권한은 현명하게도 대를 물려 아들에게 전하지 않으며…
(全國の大統領の權柄、賢に讓て子に傳へず…, 横井小楠 『國是三論』, 1860)

항상 대통령은 나오지 않고, 부통령이 대개는 일을 결정한 후, 대통령은 듣기만 할 뿐이라고 한다(常に大統領は出ず、副統領にて多分は事を決したるを、大統領は聞のみといふ, 村垣範正 『航海日記』, 1860)

그 때문에 만민 가운데 유덕하고, 재주와 지식이 만민에서 뛰어나며, 인

망이 가장 많은 자 한 사람을 밀어, 연한을 두고 대통령서양이름으로 프레스덴트를 삼고, 이로써 국민의 책임을 맡기며…(故に萬民の中にて有德にして才識萬人に勝れ、人望尤も多き者一人を推し、年期を以て大統領洋名プレジデントとなし、以て牧民の責に任じ……(加藤弘之 『隣草』, 1862)

‘콩그레스’는 미국최상의 정부로서, 대통령은 행정권을 지배하고, 부통령은 입법의 장이 되며…(「『コンGRES』は、米國最上ノ政府にて、大統領は行政ノ權ヲ總へ、副統領ハ立法ノ長トナリ……, 久米邦武 『特命全權大使米歐回覽寔記』 第十一卷 華盛頓府ノ記, 1876 識語, 1878 刊行)

이와 같은 실례를 통하여 일본어에서는 1860년대부터 ‘대통령’이란 단어가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 번째 인용문에서는 ‘대통령’이 영어의 president에 해당하는 단어임을 알려 준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에서 간행된 당시의 외국어 사전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Satow(1876), president, n. *tôriô(c)*; (of a republic) *dai-tôriô(c)*; (of an assembly) *gichô(c)*.

尺辰八(1884), Presidency, (名) 管轄. 管理○首長ノ職. 大統領ノ職○大統領ノ任期○大統領ノ管治/President, (名) 首長. 長官○共和國ノ頭領. 大統領. The *president* of a college. 校長. Minister *president* of state. 內閣總理大臣. /Presidential, (形) 首長ノ. 頭ノ. 上席ノ頭領ノ. 長官ノ. 大統領ノ. /Presidentship, (名) 首長ノ職. 大統領ノ位○大統領ノ任期.

棚橋一郎(1885), Presidency, 上席. 管轄. 監督. 大統領ノ職. 大統領之在職年限. 大統領ノ管轄/President, 會長. 議長. 首事. 管總. 總

統。尙書。大統領/Presidential, 首事ノ。管轄ノ。大統領ノ

Hepburn(1886, 3판), president, n. Tōryō, daitōryō, gichō, shachō, kwaichō, kwaitō.

島田豊(1888), *Presidence: Presidency, n.* 管理スルヲ, 管轄首長ノ職, 大統領ノ職; 大統領ノ任期, 大統領ノ管理./President, n. 首長, 監督, 長官, 議長, 總長, 校長, 社長, 會長; 大統領./Presidential (-shal), a. 上席スル, 首座ノ, 管轄スル; 首長ノ, 會長ノ, 議長ノ, 大統領ノ./President-ship, n. 首長ノ職, 會長ノ職, 大統領ノ位, 大統領ノ任期.

이처럼 일본어에 정착된 ‘대통령’이라는 번역어는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馬西尼(1997:274)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president에 대한 번역어로 ‘총통’ 또는 ‘총통령’이 쓰였다고 한다. 실제로, 서계여(徐繼畬)의 『영환지략』(瀛環之略, 自序 1848年, 刊行 1866年)이나 지강(志剛)의 『초사태서기』(初使泰西記, 1872)에는 ‘총통령(總統領)’으로 나타나며, 왕도(王韜)의 『扶桑遊記』(1879)에는 ‘총통(總統), 대총통(大總統)’으로 나타날 뿐이라고 한다.

한편, 이보다 앞선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 저술 1842, 초판 50권본 1844, 증보판 60권본 1847, 재차증보판 100권본 1852)에는 ‘수령(首領), 통령(統領), 勃列西領’과 같은 용례도 나타난다. 인용은 100권본을 활자화한 성사총서본(醒獅叢書本), 이거란(李巨瀾) 평주(評注) 『해국도지』(海國圖志)』(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9)를 이용한다.

국가의 제도. 수령의 자리는 4년을 기한으로 한다. 워싱턴은 2차에 걸쳐 8년을 자리에 있었다(國制 首領之位以四年為限 華盛頓在位二次 始末

八年/일국의 우두머리를 세워 이끄기를 통령이라고 하는데, 그 권한은 왕국과 같다(立一国之首日統領 其权如国王/(弥利坚即美里哥国总记)

정사 : 국왕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 프레스덴트(勃列西領) 한 사람을 두어 전국의 군사와 형벌, 세금 부과, 관리 임면을 모두 지배한다……정해진 예로 프레스덴트는 4년을 한번의 임기로 삼으며 기한이 차면 다시 바꾼다. 만약 모든 지배가 적당하다고 인정되고, 나라가 통틀어 기꺼이 복종한다면, 또한 한 번의 임기에 다시 머문다. 결코 종신토록 세습하는 일은 없다(政事 : 因无国王 遂设勃列西領一人 综理全国兵刑 赋税 官吏黜陟……定例勃列西領以四年为一任 期满更代 如综理允协 通国悦服 亦有再留一任者 总无世袭终身之事, 弥利坚国即有奈士迭国总记)

여기에는 ‘수령(首領), 통령(統領)’이라는 용례도 나타나는데, 특이한 예로서 ‘勃列西領[bó-liè-xī-lǐng]’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번역어가 아니라 president에 대한 음사형으로 보인다. 다만 순수한 음사형이 아니라 president의 앞 부분인 presi-까지만을 ‘勃列西[bó-liè-xī]’로 음사한 후, 여기에 한자형태소 ‘령(領)’을 덧붙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와같은 접미사를 통하여 이 단어에서 ‘수령, 통령, 총령’과 같은 의미가 연상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역사적 근거로 알 수 있는 점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중국 측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일본측 문헌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대통령’이라는 번역어는 일본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일본에서 성립된 ‘대통령’이 중국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이라는 어형도 결국은 ‘통령(統領)’이라는 한자어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그 기원은 중국어에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국어에 수용된 ‘대통령’이라는 번역어는 일본어에서 나온 신생어의 하나가 된다. 이현영은 1881년 일본에서 분명히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듣

게 되었으나, 이 단어가 국어에 정착된 시기는 그보다 훨씬 나중인 1892년 경으로 보인다. 『증보문헌비고』와 같은 문헌이 그 사실을 알려준다. 이 신생어가 쉽게 국어에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통령(統領)’과 같은 한자어가 국어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조선총독부의 『朝鮮語辭典』(1920)에는 ‘統領(통령)’이 ‘다스리는 일(統ぶること)’로 나타난다.

그 후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문세영(文世榮)의 『조선어사전』(1938)에 드디어 표제어로 등록되기에 이르렀고, 국어 단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대통령(大統領) ㉸ 공화국의 원수(元首)。/공화-정치(共和政治) ㉸ 백성속에서 대통령을 선거하여 일정한 연한(年限) 동안에 그 사람에게 그 나라의 정치를 맡기는 정치。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에는 ‘대총통, 총통’이라는 단어도 표제어로 올라 있다.

대총통(大總統) ㉸ 중화민국의 원수(元首)。/총통(總統) ㉸ ⊖ ‘총람(總攬)과 같음。○ 중화민국의 원수(元首)。

그러나 이들 두 단어는 ‘중화민국의 원수’라는 뜻으로만 풀이되어 있다. 따라서 국어에 정착된 신생어 ‘대통령’은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만을 뜻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뜻은 그대로 현대국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전번 호까지 이미 제시한 문헌은 생략함.

齋藤毅(1977). 『明治のことば—東から西への架け橋—』, 講談社.